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 학사 일정

### 10월

- 1(목)-2(금) 추석(공휴일)
- 3(토) 개천절(공휴일)
- 5(월)-14(수)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 9(금) 한글날(공휴일)
- 12(월)-19(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 12(월)-21(수)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 16(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 16(금) 2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 20(화)-26(월) 2학기 중간고사

### 11월

- 6(금) 종합시험(10월 시험) 결과 발표(예정)
- 10(화)-12(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16(월)-12.4(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 28(토)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정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온고지신의 태도로 아름다운 우리말 바라보기

### ■ 초점

#### I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심동섭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한 박물관이 되기 위해 상설·특별기획 전시해설 프로그램, 다양한 전시 및 문화·교육 행사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II 국립한글박물관의 운영 비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는 전시와 체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물관 운영을 통해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는 한글의 문자·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과학·산업·예술 등 여러 분야 간의 소통 및 융합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다양한 한글 문화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은 기획특별전 개최, 체험전시실(한글놀이터) 전면 개편 등으로 대중 친화적 한글콘텐츠 개발 확대, 보급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첫 기획특별전은 <노랫말-선율에 삶을 신다>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 <낙화유수>부터 오늘날 진정성 있는 노랫말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BTS의 노랫말까지 대중가요 190여 곡의 노랫말을 다루었습니다. 한글박물관에서 전시가 끝나면 부산에서 순회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기획특별전 <궁체와 프락투어-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가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인쇄술 개량과 발명, 한글과 독일어 문자 글꼴 등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ICT 기술을 결합한 어린이 체험전시실 '한글놀이터' 전면 개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를 몰입하여 경험할 수 있는 실감형 체험 전시관으로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한, 옛 문헌 자료의 가치를 새롭게 되살리고 한글 글꼴의 다양성을 증대하고자 덕온공주의 친필 자료 글씨를 복원하여 디지털 글꼴로 개발합니다. '한글박물관 덕온체(가칭)'로 내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한글박물관'을 통하여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III 부임 후 진행하신 사업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향후 추진하고자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동섭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올해 한국국학진흥원과 내방가사 공동연구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획전 <한글과 여성(가제)>용 자료를 확보하고 우리 박물관 연구 성과의 균형 있는 축적 및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글박물관의 최대 현안은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과 수장고 확충입니다. 이중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을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을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일관성 있고 쉽게 구성하여 한글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배경과 유물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전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중친화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 구성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한글박물관이 작은 규모이다 보니 수장고 시설도 다소 협소합니다. 현재 한글박물관 소장품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장고는 1개실밖에 없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장고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종합수장고를 임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세계문자박물관 등과 연계한 종합수장고 신축에 대한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 IV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글 또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글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류로 지칭되는 한국식 음악, 영상, 음식, 운동 등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한국문화 선호현상이며 한국문화는 한글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글문화는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한류 콘텐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해외 곳곳에서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유행하고 한국어와 한글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글문화와 한국어 교육에까지 이어지는 오늘날, 한글은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에서 나아가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 V 현재 우리 사회의 한글 교육 및 사용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곱게 쓰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글을 변형하여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조건 나쁘게 인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사용할 때 공격적인 자리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곳에서는 곱고 바른 말을 사용하고 사적인 상황 등 좀 더 유연하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말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도 싹트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춤법 등에 맞지 않는 한글을 사용하였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해하지 않을 만한 환경이나 아니나인 것 같습니다. 한글을 쓰는 사람의 뜻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한글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만큼 유연한 사고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VI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체험하면서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박물관이 재개관할 때 직접 방문하여 훌륭한 한글 자산을 접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을의 문턱,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 2021 학년도 전기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모집

“교육대학원 중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

“양성 정원 현행 유지 확정”

-2015년도 교원 양성기관 평가-

입학원서 접수 10월 12일(월) 오후 1시 ~ 10월 19일(월) 오후 5시

제출서류 우편접수 10월 12일(월) 오후 1시 ~ 10월 21일(수) 오후 5시

구술시험 11월 28일(토) 오전 9시

모집전공 가정교육, 간호교육, 교육방법, 교육사철학, 교육정보, 교육행정및고등교육, 국어교육, 기업교육, 도덕·윤리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일어교육, 지리교육, 체육교육,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 \* 표시는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 표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발급

문의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90-1379, 1370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계획 보완 안내

본교 교무처는 지난 7월 27일(월)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였고, 수강신청 기간에 외부 해킹 세력이 본교 전산 시스템에 디도스(DDoS, 이하 '디도스') 공격을 개시하여 수강신청을 방해하였다.

본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금) 학사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다.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에 대한 대응

2단계의 수업 운영 원칙에서도 전면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만큼 2학기 초에는 온라인 강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대면수업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것이다.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여 대면수업으로 시행하는 교과목(실험실습 및 실기 수업 등)의 경우 수강신청 이전에 고

지하였더라도 수강생들과 미리 소통하여 출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며,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따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디도스 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디도스 공격이 개강 후에도 이어지면 학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실시간 강의 송출 및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수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과목은 녹화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녹화 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온라인 강의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강의 시간 이전에 강의 자료를 올려야 하며 이번 학기에 새로 녹화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교원은 가급적 자택 또는 학교 외 장소에서 실시간 강의를 송출하여 학교 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피할 것이며, 전

산 장애로 실시간 강의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강의하는 모습을 별도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산 장애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등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의 출석이나 출석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교는 이미 출석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석을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할 것을 교원에게 권고한 바 있다.

기존의 위기에 새로운 위기가 더해져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 본부 부서에서는 방역은 물론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대처할 것을 학우들에게 약속하였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 2020학년도 2학기 대면 종합시험 안내

10월 16일(금) 대면 방식으로 시행 예정인 2020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되었다.

가.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18:00~21:20

△1교시 교직(18:00~19:20, 80분)  
△2교시 전공(20:00~21:20, 80분)

또는 외국어(20:00~21:00, 60분)

나. 장소: 우당교양관 및 운초우선교육관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적응을 통해 응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사장 2개 이상 활용 예정

△전공별로 고사장을 분산하며, 고사장 배치 등은 별도 공지 및 SMS 안내 예정

다. 유의사항: 추석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혹은 그에 준하는 예상치 못한 급변 사태로 보건당국의 시험방역지침을 적용한 시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종합시험 시행 일자 및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종합시험 신청자들의 양해와 협조가 요구되며, 해당 원우들은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라. 방역수칙 사전 안내

△모든 응시자는 사전 문진표 작성

후 시험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

※문진표 양식 및 제출방법 별도 공지 예정

△모든 응시자는 고사장 입장 전 발열 체크 및 소독 조치, 문진표 확인을 거쳐야 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교직과 전공 두 과목 응시자는 1교시 이후 퇴실 시 재입장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고사본부에서 정한 시간에만 고사장 입실이 가능하며, 시험 종료 후 순차 퇴실이 진행된다.

△고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며 불요불급한 대화·이동, 밀집·밀접 상황은 엄금된다.

△시험일 전 발열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고사본부에 즉각 알려야 한다.

△기타 고사본부에서 안내하는 사항 및 당일 방역 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종합시험 신청기간(9월 1일~9월 7일) 이후로는 종합시험 취소·변경, 응시료 환불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 2020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

10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10월 20일(화) 오후 11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제1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이 이루어진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필히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은 교내 포털에 로그인한 후 '정보생

활-교직사항-인성적성검사신청'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검사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인원에 따라 아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2021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 가운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미응시 학생이 있을 경우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검사시간은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며 대기장소 및 응시 시간 안내는 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교직 적성 및 인성에 관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사 진행 중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실 내 거리두기를 위하여 각 차수의 타임당 응시인원은 15명 내외로 제한한다. 또한, 각 검사 종료 후에는 약제를 사용하여 시험실 내부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인성 검사는 학기별로 1회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 불참할 경우 해당 학기 선발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 2021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교직원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금) 오후 5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학교배정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과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다.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10학번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에 5학기 이상인 학생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11학번부터: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교육대학원생 10학번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에 3학기 이상인 학생 △교육대학원생 11학번부터: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중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한편, 신청희망자가 위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했을 경우 반드시 2021학년도 1학기에 나머지 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실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2021학년도 1학기에 실습이 가능한 지역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지역 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명으로 신청 시 선발 과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한편, 실습 승인 여부에 따라 대상학교 명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 기간 중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배정은 2019년 4월 12일 의결된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력학교 승인 인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본인의 희망지역이나 기간과 다를 수 있다. 이후 신청서를 다음의 링크(https://ko.surveymonkey.com/r/6S28R9D)로 9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 배정결과는 10월 30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미배정된 학생은 결과 발표 이후 개인섭외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섭외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9월 21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실습학교에서 작성한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협력승인서와 본인이 작성한 개인섭외용 신청서를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습기간은 교육부의 관련 안내사항이 미고시됨에 따라 2021년 3, 4, 5월 중 4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조정 사항이 생기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학교배정 실습과 동일하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희망자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에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의뢰 공문과 협력승인서를 가지고 실습희망학교를 방문하여야 한다. 이후 실습 희망학교의 담당자가 작성한 협력승인서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직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소재 학교를 섭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실습학교와 유선 협의 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직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협력승인서는 별도로 공문처리를 진행한다. 신청서는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한 후 필히 원본을 2021학년도 1학기 중으로 제출해야 하며 협력승인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한다.

한편, 본교에서 실습생을 배정하여 보내는 학교인 협력학교는 개인섭외가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교직원(02-3290-1333)으로 하면 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 신규 교원자격취득생 학부 학점인정 서류 제출안내

2020학년도 후기 입학자 가운데 신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양성과정생은 10월 16일(금)까지 교원자격 취득 관련 학부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학부 전공학점 인정서(소속 전공) 1부 △학부 교직학점 인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학부 성적표 원본 1부(전공, 교양 등 이수구분이 반드시 성적표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학부 전공학점 인정서를 작성할 때는 교육부 이수지정 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전공과목을 우선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 이수지정 과목과 유사한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과목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수과목 명칭이 상이하거나 전공 과목이 아닌 과목은 작성 불가하며, 동일한 과목명의 I, II로 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하위과목(I)을 우선 작성해야 한다. 전공 관련 교양 또는 계

열기초, 전공기초 등은 전공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학부 교직학점 인정서는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였고, 학부 성적표상에 교직으로 표시된 과목이 있는 학생만 작성하면 된다.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성적표에 교직으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학부 대학에서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를 받아 학부 교직학점 인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검토 후 인정이 가능하다.

한편, 구비된 서류는 운초우선교육관 내 사범대학 교직원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507호 사범대학 교직원)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교직원(02-3290-1335)으로 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온라인 인정 방안

본교에서는 온라인 교육봉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참작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봉사 시간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교육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범대학 학부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생,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중 2020학년도 2학기에 온라인 교육봉사를 시행하는 학생이다. 인정되는 방식은 아래의 두 경우이다.

첫째, 줌(Zoom)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으로 학생을 지도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교육봉사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둘째,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지도를 진행했음을 증명하면 1일 최대 2시간을 인정한다.

증빙 제출 방법은 인정 방법에 따라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실시간 쌍

방향 지도의 경우 학생을 지도하는 전체 시간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을 거쳐 가능한 적은 용량으로 제출한다. 메신저 지도의 경우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시각과 메시지 대화를 종료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화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8월 온라인 교육봉사 이행자 중에 관련 증빙 제출이 없는 자는 1일 최대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봉사로 인정 가능한 봉사 내용은 일반 봉사활동과 동일하며, 행정 보조 또는 생활 지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 봉사 인정 방안은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02-3290-1335)에 문의하면 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이슈

POST COVID-19, 세계시민교육은 계속될까요?



이춘희

서울문성초등학교 교장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부대표  
서울초중등세계시민교육연구회 회장

필자는 세계시민교육특별지원학교, 연구학교, 유네스코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전학교적 접근의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4년간의 지속적인 교육의 결과, 비록 초등학교들이지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학생들은 문화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과 세계 간의 관계성 등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실천이나 페러다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변화에서 교육의 힘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세계시민교육이 교육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1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올해는 학교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날이 별로 없다. 교육당국은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고민이 깊고 학교 역시 돌봄과 교육격차 해소 등의 짐을 짊어지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상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빈곤, 갈등, 분쟁, 난민, 환경 파괴, 기후변화, 테러 등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20세기 두 차례 전쟁을 겪은 국제사회는 유네스코를 설립하여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후 평화교육, 인권교육, 문화간 이해 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었으나 2015 인천세계교육포럼을 기점으로 이 모든 보편적 가치를 포괄하는 변혁적 교육인 '세계시

민교육'이 전 세계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교육 의제로 대두되었다. 세계시민교육은 인촌 선언의 세부목표 제5항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7항에 채택되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교육 의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1 세계시민과 세계시민교육

전 지구적 문제에 공감하며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계시민이라고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역량인 세계시민성을 길러내는 교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과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세계시민교육의 정신은 일맥상통한다. 교육과정은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 유사개념이 등장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인 공동체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1 POST COVID-19, 세계시민교육은 계속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예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염 확산 통제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일회용품, 방역물품과 쓰레기 처리,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부족, 양극화, 혐오와 차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맞닥뜨렸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와 공동체 안전 간의 균형, 기후 위기, 지속가능성, 느슨해진 연대와 지원 등의 이슈는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1 서울초중등세계시민교육연구회

연수와 교육의 기회가 많다는 것은 교직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기도 하다. 서울초중등세계시민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 등록된 법교과 교과교육연구회로,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계시민교육연구소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연수와 강의, 사례 나눔, 현장체험연수, 포럼을 주관하며 회원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연구회 온라인 연수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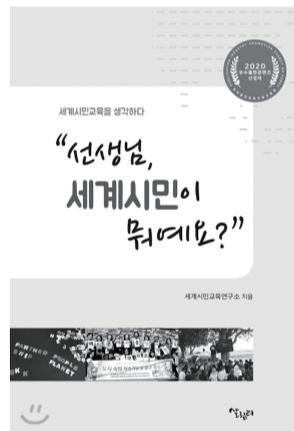
휴업과 휴업연장, 온라인 개학,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 다양한 상황 속에 선생님들도 무척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연수를 마련하기 위해 북도크 형식의 온라인 연수를 기획하였다. 최근에 발행된 두 권의 책을 선정하였는데 세계시민교육연구소에서 지은 『선생님, 세계시민이 뭐예요?』와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기획한 『멀티플 팬데믹』이다. 북도크와 회원들의 사례 나눔 등 10차시 연수 후 포럼으로 활동을 정리하였다.

1 세계시민으로서의 나, 세상을 바꾸는 나의 작은 실천

살아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먼저 실천하는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 교무실에서 휴지 대신 자기 수건 걸어두고 사용하기, 분리수거 꼼꼼히 하기(마스크 귀걸이 잘라서 버리기 등), 텀블러 사용하기, 방치된 공간 정리 및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등 선생님들도 세계시민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창의적체험활동 원격수업을 환경 주제로 다루면서 리사이클링 실천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원격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재사용되도록 기부하고 실생활에서 장바구니, 텀블러, 비닐봉지를 재사용하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공감과 실천,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 차별하지 않고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모두 세계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이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단신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 전환 계획 예고

교육부는 지난 9월 11일(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고시 개정을 위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공고는 현행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여 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과용 도서의 종류로서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지칭하며,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한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초등 국정도서 중에서 사회·과학 과목을 지난해부터 검정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정이다. 검정 전환 대상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총 16책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된 발행 체계는 학년군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군)	디지털교과서
사회/도덕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과학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행정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11일(금)부터 10월 5일(월)까지 24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를 포함한 의견과 제출인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팩스(FAX:044-203-6325)를 통한 모사전송, 전자우편(keo017@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이라닝과, 30119)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이라닝과(044-203-643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10월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초등 수학 공부 도우미로, 고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도입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비판적 사고력, 정보판별력, 공감·소통능력 등을 길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학교 교육에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학교에서는 수준별 개별화 학습, 가정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똑똑! 수학탐험대(이하 '수학탐험대') 서비스를 9월 14일(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하였다.

또한,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1일(금)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과목 신설)을 확정 고시하였다.

'수학탐험대'는 학교 교육활동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첫 사례로, 교과과정교과서 기반으로 설계된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면 인공지능 기술로 결과를 분석·예측하여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성 게임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정책 연구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습 콘텐츠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및 가정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11일(금)에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을 고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는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내년 2학기부터 인공지능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두 과목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2021년 2월에 보급할 예정이며, 사·도 핵심 교원(정보, 수학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초·중학교 인공지능 교육은 2020년 하반기까지 개발 예정인 '인공지능 내용 기준(안)'에 따라 보조 교재를 개발하여 2021년 상반기에 초·중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교와 가정, 해외 어디서나 공부하며 학습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할 17개의 거점학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미취업한 졸업생 및 군 전역 졸업생 등을 위해 2020년에 신규로 마련된 것으로, 직업계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를 통해 졸업 후에도 모교로부터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사업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거점학교 선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공모 당시 전국 37개 직업계고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현장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온·오프 융합 공간 구축', '취업 관리 업무 개발·활용', '지역 특화 영농창업 공간 제공' 등 졸업생 지원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9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추가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설정하여 이의 실현에 역점을 두어 왔다.

최종 선정된 거점학교는 공업 10개교, 상업 5개교, 농업 1개교, 가사·실업 1개교이며, 서울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상권(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 전라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총 3개의 권역에 걸쳐 계열별로 고루 선정되었다. 이 17개의 거점학교는 매년 1억 원씩 최대 5년간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며, 각 학교는 이 예산을 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각 거점학교는 별도의 취업공간을 조성하여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졸업생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졸업 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졸업생들의 이력을 관리한다.

셋째,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인근 학교 및 유사 계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직업계고에 배포함으로써 졸업생 지원과 관련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전국 17개 거점학교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선봉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체계적인 취업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교육과 학문

## 역사적 사고는 일상적 사고와 같을까? 다를까?



윤종필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필자는 수업 시간에 ‘역사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가끔 하곤 한다. ‘공동체적(혹은 민족) 정체성 함양’, ‘민주시민 양성’과 함께 역사교육의 목적으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역사적 사고 신장’이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역사적 사고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의 역사교육적 함의(2018)』도 바로 이 역사적 사고에 관한 것이다.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역사적 사고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역사적 사고의 핵심 요소, 둘째, 역사적 사고 교수학습 방안.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놓쳐왔던 부분이 역사적 사고의 인식론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역사적 사고의 인식론적 성격을 분석한다는 것은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사적 사고를 통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가?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사고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반대로 도출할 수 없다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필자가 당시에 내린 결론은(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하지만), 역사적 사고를 통해 생산한 역사적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실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키스 젠킨스(Keith Jenkins)를 비롯한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필자는 여전히 정당화된 역사적 해석과 그렇지 않은 역사적 해석 사이의 의미 있는 구분이 가능

하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필자는 정당화된 역사적 해석과 그렇지 않은 역사적 해석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역사적 해석이 역사적 사고를 통해 온전히 도출된 것인가의 여부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온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고도 그와 유사한 사고 과정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가지고 구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구입을 원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소비자들은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보다는 인터넷 포럼에 있는 개별 구입자들의 구매 후기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비자가 구매 후기를 더 신뢰한 것에는 정보 생산자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매 후기는 다른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구매 후기 작성자들은 해당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 물건이 많이 팔리게 노력할 가능성은 적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정보 제공자의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출처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역사가가 사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고 과정과 유사하다. 역사적 사고를 통해 도출한 해석의 정당성은 우리 삶 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사고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합리적 사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필자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역사적 사고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두 단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일상적 문제 해결이며 두 번째는 역사적 문제 해결이다.

일상적 문제 해결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역사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둘째, 역사적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발달시킨다. 셋째,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사적 사고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 여기서 필자의 주장은 역사적 사고 교수학습모형 개발의 방향성이 일상적 사고와 역사적 사고의 유기적 연관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고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이 있다. 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샘 와인버그(Sam Wineburg)이다. 와인버그는 각각 8명의 역사가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1775년 미국 독립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렉싱턴 전투(Battle of Lexington)와 관련이 있는 여덟 점의 문서와 세 점의 그림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는 방식을 관찰하였다. 관찰을 위해 그는 ‘말하며 생각하기(think aloud)’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연구 대상이 제시된 자료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와인버그의 비교 연구는 다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역사가들은 자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바로 ‘출처 확인(sourcing)’, ‘확증(corroboration)’, ‘맥락화(corroboration)’이다. 출처 확인은 텍

스트의 내용을 읽기 전에 문서의 출처를 먼저 보는 행위이다. 확증은 문서를 다른 문서와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맥락화는 문서를 구체적인 사공간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 맥락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맥락화는 ‘사건을 구체적인 공간에 위치시키고 지리, 날씨, 기후, 그리고 풍경과 같은 사건 발생의 조건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맥락화는 보다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맥락이라 함은 ‘그 당시의 정신적 풍경(mental landscape)을 형성한 지배적인 사고 형식’ 혹은 ‘망팔리페(mentalité)’를 의미한다. 역사가들과는 반대로 연구 대상 학생들은 위와 같은 ‘발견법(heuristics)’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섬세하지 못한 형태로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버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역사학에서는 고유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자연스럽지 않은(unnatural) 행위’이다.

과연 역사적 사고는 필자가 주장하는 대로 자연스러운 행위일까? 아니면 와인버그의 말대로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일까? 여기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역사적 사고 교수학습모형의 개발 방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와인버그의 입장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인버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필자 역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교육신문 문화평

## 크라잉넛 데뷔 25주년: 조선핑크의 과거와 현재 ②

## “우리만의 세계”의 시작 - ‘스트리트 핑크 쇼’에서 ‘아워 네이션’까지

그러나 곧 옐로우키친 등의 밴드가 합류하고 핑크록 매니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드력은 ‘조선핑크’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이미 당대 음악 잡지사의 기자들은 새로운 흐름의 태동지인 드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 때 창간 1주년을 맞은 잡지 ‘서울 아이의’ 기자들이 기념 이벤트로 페스티벌을 제안했고, 이에 이석문 사장이 기획한 공연이 ‘스트리트 핑크 쇼’였다. 밴드가 길거리에서 공연을 한 사례 자체가 드물었고, 스탠딩 공연조차 낯선 개념이었던 시절이다(메탈리카 첫 내한 공연을 모든 관객이 착석해서 관람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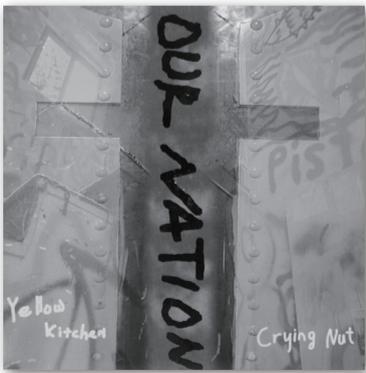
1996년 5월 25일, 홍대 앞 주차장 사거리에 간이무대가 설치되고 크라잉넛을 위시한 다섯 밴드가 공연을 시작했다. 당시 홍대 앞에서도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던 밴드들, 그리고 길거리 공연이라는 기획의 생경함을 경악으로 바꾼 건 관객들이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에 따르면 “첫 곡부터 맥주 캔이 하늘에서 날아다녔고 두 번째 곡에서는 이미 기존 드럭 죽돌이들이 주도하는 슬랩 판이 벌어졌다.” 밴드들은 드럭에서처럼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해집으며 연주를 했고, 관객들 또한 무대에 뛰어 들어 몸을 부딪치다 다시 객석으로 다이빙을 하는 등 이 날의 스테이지는 공연이라기보다 ‘카니발’을 방불케 했다. 급기야 민원이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들 역시 속수무책으

로 피날레인 ‘Anarchy in the U.K.’의 연주까지 이어진 무정부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날 ‘드럭 죽돌이들’에 더해 지나가던 젊은이들까지 합세한 관객들의 행위는 이상면(크라잉넛/기타)의 회상에 따르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몸부림”에 가까웠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의 음악에는 당대에 처음 그것을 접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 둘째 날 명동으로까지 이어진 스트리트 핑크쇼는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고, 곧 ‘한국 인디록’의 출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여세를 몰아 레이블까지 설립한 드럭에서 발매된 첫 번째 음반이 컴필레이션 앨범 ‘아워 네이션(Our Nation) vol.1’으로, 기획/제작/유통의 전 과정이 밴드와 자체 레이블에 의해 진행된 한국 최초의 앨범이다. 유통을 맡아 주겠다는 도레미레코드의 제안을 거절하고 공연장에서 “보따리 장사”로 판매한 이 앨범은 무려 1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크라잉넛과 옐로우키친이 각각 7곡씩 참여한 ‘아워 네이션’은 이후 6번째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노브레인, 레이저본, 위퍼, 비바 소울 등 초기 한국 인디음악의 대표적인 밴드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아워 네이션’은 당시 크라잉넛과 드럭이 직면한 두 가지 비판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하나는 연주 실력을 문제 삼는 하드록/메탈 밴

드와 팬들의 조소이고 다른 하나는 “동부 이촌동 살면서 프롤레타리아 코스프레하냐?”는 비난이었다. 전자야 크라잉넛이 표방하는 ‘핑크’의 지향과 배치될 것이 없지만, 후자는 핑크란 무엇이며 그들이 그것을 전유할 수 있는지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그러나(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것지만) 최초의 핑크록이 노동자들의 분노와 맞물려 태어나고 전파되었을지언정 그것은 울분을 대변했을 뿐만 한 번도 직접적으로 ‘혁명’을 지시하거나 ‘프롤레타리아’가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무엇이었다. 하물며 크라잉넛이 등장한 90년대는 국내외적으로도 ‘운동’의 파고가 낮아지고 분노는 집단적인 것에서 파편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을 때였다. 크라잉넛 멤버들이 스스로의 정서를 핑크록에 담아내거나 이를 통해 다른 이의 감정과 공진하는 데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경록(크라잉넛/베이스)의 말처럼 ‘아워 네이션’은 “우리만의 세계”를 선언하는 표어였고, 그 깃발 아래 집결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질한 비판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제 이들의 ‘운동’은 뒤이어 발매된 크라잉넛 1집 ‘말달리자(1998)’에서 시작될 절정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전진하기 시작한다(3편에서 계속).



마침내 ‘동부 이촌동’ 출신 네 명의 꼬마들은 한국 핑크록의 성지(가 될), 클럽 드럭의 하우스밴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마치 지금 대형기획사의 신인이 등장할 때와 같은 관심과 환호를 연상하기는 이르다. 록은 ‘K-POP’이 지반을 다지기 이전부터 이미 비주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핑크록’은 생소한 장르였다. 드럭 역시 하우스밴드라고 해봐야 크라잉넛 한 팀이 전부였다. 이들은 이 시기에 클럽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하고는 했다고 회고한다.

교육과 스승

뜨거운 열정으로 어려운 이들의 그늘을 데우는 강경숙 교수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원광대학교 강경숙 교수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멈추지 않는 에너지로 사회의 사각지대에 불을 밝히는 강경숙 교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경숙입니다. 교수로 임용되기 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그 전에는 세이브 더칠드런(NGO) 국제결연 담당자, 공립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덕분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교육청 자문 및 교육정책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장애관련 단체 운영위원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수교육의 한 길을 소신 있게 걸어오셨습니까.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수교육은 제게 운명이고도 같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특수교육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애 분야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에 마음이 끌립니다. 제게는 간절한 마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연구와 학술 활동, 현장성을 중시한 강의와 학생지도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요?

현장성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쳤던 특수교사 출신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고, 경험과 공감함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장애교육, 복지, 재활

등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 장애인 관련 독서 및 영화감상문, 조별 지식 검색 프로젝트를 하도록 지도하면서 장애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이론으로도 단단히 준비되어야 하지만 실제 적용할 현장이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장애인 영화제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미디어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저희 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인근 소재 '미디어트' 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장애인 영화제를 개최하도록 안내하곤 합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영화제 출품 작품을 선정하기도 하고,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관람하러 오는 분들에게 장애인식개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또한, '휴먼에이드'의 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 기사 쓰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의 사명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발달장애인 미디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여 장애 학생 통합교육 가치 확산, 일반인과 장애인의 직접 교류 증진,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인을 위한 미디어교육, 또한 장애인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교육은 이처럼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대의 추세에 적절하고도 자연스러운 '모두를 위한 교육'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참여하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개와 그 의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4년 전 정서·심리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좋은의자'를 창립해서 '사람돌봄' 원칙을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현재는 '조우네 마음약국'과 함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가정 없는 청소년을 보살피는 익산의 '뜰레랑'이라는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 기관인 '엔젤스헤이븐', '한국장애인사랑협회'의 운영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활동과 '약자의 눈'이라는 국회 활동에 관여하면서 장애 개념화, 정신질환자의 동료지원가 지원 활동을 제안하는 등의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와 교육의 안 전망을 촘촘히 하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사람들만 누리고 차별한다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장애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해 전 서울에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로 장애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기사가 나서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는 단지 다를 뿐이지 두렵고 거리를 둘 차별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교우관계도 형성하고 실제 수업의 내용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최근 교육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기쁨과 보

람을 느꼈던 사례 또는 힘들거나 아쉬웠던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학에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한 학생 한 학생의 미래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장애 동생들 둔 제자에게 외부 장학금을 연결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학비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공부에 전념하여 4학년 졸업 직후 임용고시에 합격한 그 제자가 보람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취적인 소양과 자기주도역량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민감할 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잘 해석해낼 줄 아는 능력과 감성이 요구됩니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만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인성이 함양된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대학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사회·상황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젊다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시도하면 눈과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 교육과 세계

## 뉴질랜드의 NCEA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요건 설정에 주는 시사점



박지혜

상동고등학교 교사/교육학 박사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지는 학생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교육 선진국에서는 고교 졸업 요건을 설정하여 졸업 시점에서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기능을 갖추게 하고, 중등학교 이후의 진학 및 취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뉴질랜드의 경우, 2002년부터 미리 정의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진급 및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NCEA)를 도입하여 고교 졸업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 NCEA의 교육적 특징 및 그 성과와 한계를 개관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요건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I NCEA의 특징

뉴질랜드는 교육의 성과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공에 이바지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뉴질랜드 학력 인증 체계(New Zealand Qualification Framework, 이하 NZQF)를 만들었다. NZQF는 교육 단계별로 학생의 성취를 확인하는 제도로 학습자가 각 단계의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지식과 기술 수준에 관한 상세하고 수준 높은 경로를 안내한다. NZQF의 자격 유형은 NCEA를 비롯하여 고교 교육 이후에 획득할 수 있는 각종 수료증부터 박사 학위까지 매우 다양하다. NCEA는 Level 1부터 3까지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Level 1은 학생이 획득한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인증하고, Level 2는 취업이나 직업 교육 기관 등에 진학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며, Level 3은 4년제 종합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요구된다. 일반적

으로 Level 1, 2, 3은 각각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1, 12, 13학년에서 취득하게 된다. 특히 NCEA Level 3은 국제적으로 영국 GCE A-Level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고 있어 뉴질랜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등 국외 우수 대학에 진학할 때에도 활용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뉴질랜드의 고등학생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과목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개의 '지식과 기술'에 관한 기준(standards)에 근거해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NCEA는 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생이 학습의 결과로서 나타내고 수행해야 할 평가 준거(criteria)를 충족하는지 평정한다. 학생이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각 기준에 배당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학점은 해당 과목을 학습하기 위해 학생이 투자해야 할 시간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11학년부턴 한 학년에 5~6개의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데, 한 과목을 수강하면 평균 20~2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학점이 학년별로 80학점 이상 누적되면 해당 학년의 수준에 해당하는 NCE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 의한 내부평가와 1년에 한번 시행되는 외부평가를 조합한 방식으로 판별된다.

## I NCEA의 성과와 한계

NCEA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학생이 알거나 할 줄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보장하여 중등학교 이후의 고등교육기관 진학과 취업을 위한 준비를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특히 고부담, 경쟁체제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를 미리 정의된 기준에 근거해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성상 중등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과 성공을 예측하는 효

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내부평가를 병행하여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며 외부 평가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내부평가에서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게 되므로 수업 역량을 신장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내부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NCEA는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부분은 기준을 충족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누적하기만 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한 동기는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가 NCEA를 상당히 복잡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NCEA는 다양한 능력과 수준을 가진 학생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학교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직업 훈련 과정 참여 등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점 이수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학생을 위한 이러한 융통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복잡함'으로 여겨지는 단점이 있었다.

## I NCEA가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고,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어 졸업을 위한 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따라서 NCEA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NCEA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졸업 요건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학생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한다. 고등학교의 졸업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하지는 제안은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학생들로부터 졸업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의 학업 및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NCEA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이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학업 결손을 방지하는데 독특한 효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교 졸업 요건을 설정할 때에도 학업능력이 부족하여 정책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생을 위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졸업 요건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폭이 좁은 선택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융통성이 많은 NCEA를 학생과 학부모는 오히려 상당히 복잡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고교 졸업 요건을 설정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과 경로를 간단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졸업 요건을 설정하기 전에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졸업 요건의 개념과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기능이 무엇인지 흐릿해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학문의 바탕이 되고 전이기가 높은 몇몇 과목을 비롯해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와 관련된 선수과목을 졸업 요건에 포함하여 향후 학습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공부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교육현장 노트



최현진

체육교육전공/양명중학교

에 불과했다. 그렇게 치른 첫 시험은 당연히 불합격.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내가 아니지!'라는 자신감을 갖고 두 번째 시험에 도전했으나 역시 불합격. '한국 사람이라면 삼세판!'이라고 합리화하며 세 번째 도전을 했으나 또다시 불합격. 나라면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임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자만심이 가득했고, 흔히 말하는 루틴이 없이 그날 몸 상태나 기분에 따라 공부를 했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10명 남짓한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랴. 나와 같은 후배들을 위해 합격한 선배들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한 선배의 "너도 나처럼 손으로 쓰면서 외우고 난 후 이해하는 것 같던데, 너 공부를 손으로 한 걸까, 머리로 한 걸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3일에 한 자루씩 펜을 없애며 한 공부머리가 아닌 손에 의한 것임을.

다음날 포스트잇에 각 과목 목차를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목차에 체크했다. 무조건 외웠고 후에는 목차까지 외워서 원하는 파트를 생각하면 쓰지 않아도 술술 입으로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

## 그대여, 아리아리!

과는 또 불합격이었다. 더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게다가 4년이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다 보니 더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 스포츠 강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라며 독을 품고 공부했다. 그러나 여전히 난 불합격이란 단어만 봐야 했다. 심신은 점점 지쳐갔고, 당장에라도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불안했다. 그렇게 2014년과 2015년에도 연이어 낙방했다. 이제 곧 30살인데, 불안은 도를 넘었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라는 말을 남기고는 친구네 집에서 혼자 평평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나니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졌다.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데 초점을 두고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다시 임용 공부를 시작했다. 그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야?', '불합격' 다시 질문했다. '합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아니, 채점관이 기준에 따라 채점하는 것에 달렸지'. 맞다. 합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다만, 수없이 많은 내

루틴들은 통제 가능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합격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체력유지 및 실기 시험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하기, 임용 시험 시간에 맞춰 공부하기, 식단 조절하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지켜나갔고 특히 매일 긍정적인 말이나 감사한 일을 꼭 말하며 기도를 마무리했다. 신기하게도 심신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고 실제로도 건강해졌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 후 치른 시험은 합격! 그토록 원한 합격이었다.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하자'가 빛을 발휘했다.

임용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합격을 의심하면서, 혹은 의심하지 않더라도 보장되어 있는 합격이 아니므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묻고 싶다. 혹시 통제 불가능한 일에 집중하면서 매일 불안해하고 있는가? 20대 청춘을 임용에 다 바쳐 교사가 된 이 이야기를 위한 삼아 희망을 가져보기 바란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자신을 다독이면서, 그렇게 힘을 내어 아리아리! 하자고 말하고 싶다.

2009년 1월, 노량진에서 내 임용은 시작됐다. 공교육에 종사하겠다 다짐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에 굴복하고 말았지만 임용 준비는 차가운 날씨에도 뜨겁게 시작되었다. 예비졸업생 자격으로 합격이란 부푼 꿈을 안고 땀뻑하게 '한 번에 합격한다!'라며 시작했지만, 나는 허울만 임용준비생

학교현장 탐방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으로 미디어 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명신여자고등학교



김동용 명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디어 분야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한편, 융합적 사고력과 강한 도전 정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과정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명신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용입니다. 1971년에 개교한 명신여자고등학교는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선정된 이래,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학교, 인천광역시 학교평가 우수교(교육경영)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은 2018년 일반고 교육력 제고 사업 전국 10대 우수교, 2019학년도 선진형 교과교실제 선도학교, 2019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등으로 선정되어 보다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지식재산 일반 선도학교, 임베디드 AI 중점학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커짐에 따라 ‘선진학교 탐방’이라는 주제로 타 지방, 타 학교에서도 명신여고로의 탐방 의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학교 또한 늘고 있습니다.

명신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명신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미래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정신이 뚜렷하고 협동하는 ‘자율 협동인’, 심신이 건전하고 교양을 쌓는 ‘건강 교양인’, 진취·창조의 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 개척인’, 꾸준히 면학하여 실력 배양에 힘쓰는 ‘면학 실력인’, 친철·명랑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의바른 ‘친철 예절인’, 민주역량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애국 애족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교는 단계 집중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운영하는 보통의 학교와 달리, 본교는 학생들이 1

학년부터 자신의 진로·진학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 학생들로부터 각 과정(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 인문과학과정, 사회과학과정, 문화예술과정, 자연과학과정, 수리공학과과정, 나노&바이오 과정)에 대한 사전 희망서를 받아 학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 구성 이후에도 유사한 진로·진학 방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탐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은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콘텐츠 환경이 우리 사회에 빚어내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탐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광고, 홍보, 언론, 방송매체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과 관련된 과목(진로영어, 고전읽기, 심화국어, 영미문학읽기, 미디어와 사회, 한국사회의 이해, 사회과제연구, 미디어 콘텐츠 일반,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심층적으로 교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 중점 동아리(인터넷 신문 제작반, 반크반, 유네스코반, 토론반) 운영, 방송국 및 신문사 견학, 스튜디오 광고영상 제작 활동, 인문학 관련 현장 체험 활동, 교수 및 전문가 인문학 특강, 언론인 초청 특강, 인문 감성 캠프,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미디어 분야에 대한 소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년 말에는 이 활동들에 대한 결과물을 학생들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표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각자의 경험과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미디어 융합사회중점과정을 갈무리하게 됩니다.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미디어 분야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디어 분야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한편, 융합적 사고력과 강한 도전 정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과정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성장



해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사들 역시 하나의 교과만을 수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수업해 나가기 때문에, 학생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교의 학생과 교사 모두는 이 교육과정을 단지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을 발굴·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은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기존의 ‘1교사 1교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3~4개의 교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업 연구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매우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 강사진, 체험학습처 섭외 등도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학습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과목 선택부터가 큰 고민일 것입니다. 또한, 1학년 이후 진로가 변경되면 교과목 선택에 있어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경우, 학생들은 어느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지 직접 판단하여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역시 학생들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본교는 7개의 트랙으로 단계 집중형 선택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도 이 7개의 트랙 가운데 하나입니다. 1학년 입학 시점부터 학생의 진로 방향에 따라 학

생과 학부모가 직접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을 구성합니다. 때문에 진로·진학 지도에 대한 명확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활동 기반형 프로그램이 줄어 학부모 및 학생은 물론 학교 또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사회중점과정은 지금껏 잘 운영되어 온 과정이기도 하고 그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차질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자신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미디어융합사회중점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종에 종사하건 간에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사회적 위치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위계 관계가 명확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함과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생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계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특성상 이것에만 매달리다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 주는 교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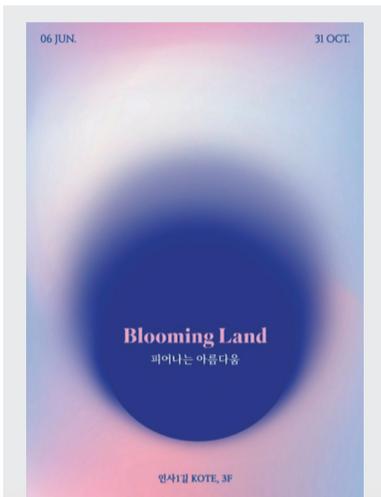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 문화 탐방

##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관점, 'Blooming Land: 피어나는 아름다움展'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예술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하는 'Blooming Land: 피어나는 아름다움展'을 소개합니다. 본 전시는 10월 31일(토)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6일(일)을 기점으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시가 일찍 종료됨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작품들을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번 전시의 미(美)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미(美)'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관람객들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미(美)'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가들이 빚어낸 다채로운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한번쯤 사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Blooming Land: 피어나는 아름다움展)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33, 인사1길 KOTE 3층
- 전시기간: 2020.06.06.(토)-2020.09.06.(일)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오전 11시~ 오후 8시 (입장마감 오후 7시 30분)
- 관람요금: 성인 12,000원  
학생(초,중,고) 9,600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7,200원
- 전시문의: 010-3398-7051

미(美)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집단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美)를 바라보는 기준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다소 획일적이었던 전통적 미의 기준에 반기를 들며 아름다움에 대한 새 지평을 열고 있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는 것이 무색하게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또한 각자의 관점에서 여러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관점을 결코 관람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작품을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떠올려 보게 할 뿐이다.

## I 체온 위에 피어나다

이 전시의 첫 번째 섹션은 타투이스트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타투는 그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술 작품을 몸에 새긴다는 측면에서 타투를 하나의 시각 예술로 여기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타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다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독특하고 추상적인 형태, 세밀하게 표현된 색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어둡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온 탓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이 새롭게 피어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II 빛으로 개화하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빛을 매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거대한 아크릴판 위에 홀로그램 빛이 시시각각 색깔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아크릴판이 설치된 공간을 지나면 아주 어두운 공간 속에서 홀로 빛을 발하고 있는 여러 겹의 나뭇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나뭇가지를 겹쳐 만든 탓에 그림자가 드리우는데, 이 그림자와 생동하는 빛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이자 예술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기에, 빛 그 자체를 예술로 구현해 낸 이 공간이 다소 생소하기도 하다. 하지만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로 피워내는 모습에서 새로운 미감을 살펴볼 수 있다.



## III 평면으로 돌아나다



세 번째 섹션은 꽃의 아름다움을 담은 공간이다. 평면 캔버스에 새겨진 여러 꽃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려낸 작가의 시간과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작품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카메라에는 결코 다 담기지 않는 과감하면서도 섬세한 붓질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꽃의 형태와 색을 수정했을 것이다. 결국 이 공간에 전시된 작품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작가의 노력과 정성이 빚어내는 정서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자아내고 있다.

## IV 조각하여 자라나다

네 번째 섹션은 다양한 색으로 피어나고 있는 식물들과 특별한 색 없이 곧게 뻗어나가는 나무들로 채워져 있다. 다양한 색의 식물과 특별한 색이 없는 나무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경한 자연이다. 이 때문에 관람객들은 이 공간에서 낯설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낯설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작가가 이 공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낯설'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자연 속에서 생경한



산책을 하며 관념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아름다움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 I 빛내어 싹틔우다 1

다섯 번째 섹션은 가상의 방역 업체 'toxic'의 설정을 통해 구현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현재의 재난 상황에 맞추어 '방역'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 방역은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움, 그리고 이 단어가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려, 방역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침체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자신들만의 긍정적 문화로 승화하기 위해 패셔너블한 방역 제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젊고 실험적이며 진정성 있는 하류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II 빛내어 싹틔우다 2

이 공간의 갈대밭은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실링팬에 의해 잔잔하게 흔들리는 갈대들은 관람객들의 감성과 정서를 자극한다. 하지만 공간의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정적인 갈대밭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휴대용 라이터가 액자 속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갈대밭과 라이터. 이 어울리지 않는 둘의 조합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 사실 이 갈대밭은 휴대용 라이터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아름다운 갈대밭이, 알고 보니 상품 광고를 위한 장치였다는 숨겨진 반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 강요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게 되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 III 오감으로 꽃피우다

이 공간은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이다. 평상시에 우리는 오감 가운데 시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느껴볼 수 있다. 좁고 어둡게 연출된 길은 총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역마다 코끝에서 맴도는 향, 들려오는 소리, 발밑으로 느껴지는 촉감이 다 다르다. 이 공간들은 어둡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각 외 다른 감각에 집중하게 된다. 아름다움은 결코 시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감이 모두 합해질 때 더욱 다채롭게 피어날 수 있음을 느껴볼 수 있다.



## IV 소생시켜 터뜨리다

아랄해는 한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다. 하지만 패션 산업에 필요한 목화 재배를 위해 인간이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려버린 결과, 아랄해는 결국 사막화되고 말았다. 한편, 작가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이 전시의 마지막 공간을 연출했다. 버려진 옷들을 활용하여 거대한 돔을 구성하고 그 벽면에 바다 생물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조사하여, 환경 파괴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바다 생물들이 다시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 파괴, 그로 인해 훼손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작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때 아름다움 또한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작가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예술 작품을 통해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이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관점에 공감하기도, 공감하지 않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미(美)의 관점을 정립해 나갔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아름다움의 기준에는 명확한 답,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의 관점이 과연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관점을 점검해 보는 한편,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